

기후위기에 대하여



우리 동네 온도 1.5도 낮추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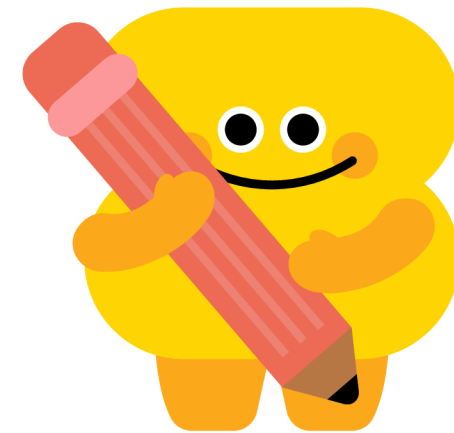
생활속에서 실천가능한 방안, 제도적 장치 제안, 대국민 캠페인



심각한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재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러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이 여름과 겨울의 온도또한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실천 해볼만한, 정부에서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습니다. 이로인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해보는 좋은 경험이 될것입니다.

목차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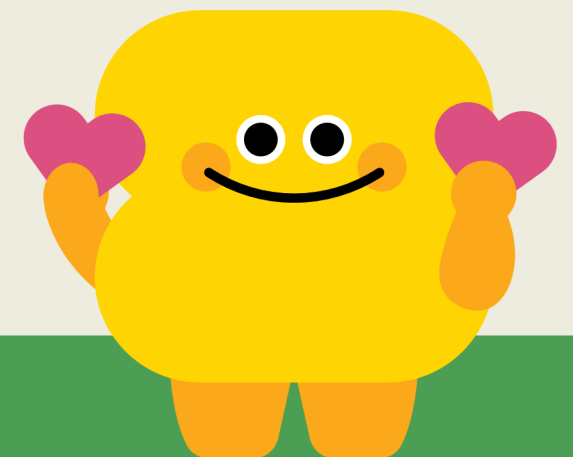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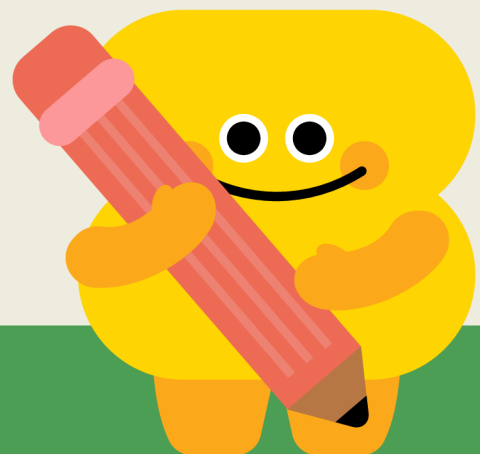
우리가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02

정부에서 해줄수있는 아이디어

03

캠페인,챌린지를 이용한 아이디어





우리가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1



뽁뽁이를 활용한 아트 프로젝트

에어캡이라고도 불리는 창문에붙이는 뽁뽁이를 유리창 안쪽에 붙이면 외부 태양열이 차단돼 약 3도 가량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활용해 회사나 학교, 집 등에서 다같이 뽁뽁이를 예술작품처럼 붙이고 꾸미면서 실내 온도를 줄이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환경보호와 예술의 결합: 단순히 온도를 낮출뿐만 아니라, 뽁뽁이를 붙임으로써 예술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 1㎡ 당 400원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실내 온도 3도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어떻게 동네 아트 프로젝트로 만들까?

01

가정참여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창문 뽁뽁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메시지를 쓰는 방법. 예를 들어, 동네의 상징물, 자연 풍경, 또는 문구를 적어보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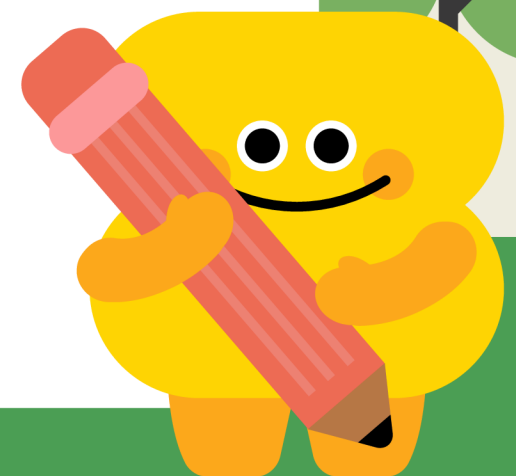
공동작업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공원 같은 곳에 큰 뽁뽁이를 펼쳐놓고,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동네 특정 건물이나 공공 시설의 창문에 붙여보기.

03

테마 설정

계절이나 특정한 기념일 마다 테마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뽁뽁이를 교체하는 방법. 여름에는 시원한 파란색, 봄에는 따스한 꽃 등의 여러 테마로 꾸며보기.





우리가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2



쿨페인트로 만드는 시원한 동네

그리스의섬 산토리니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산토리니 섬은 집을 모두 하얀색, 파란색으로 칠해 강렬한 태양빛을 반사시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섬처럼 특정한 동네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도 있고, 건물 자체의 온도를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앵방에너지 절감: 건물 내부 온도가 줄어들어 에어컨 사용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냉방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게 된다.

도시열섬 현상 완화: 도시의 많은 건물 지붕과 벽에 쿨페인트를 적용 하면 도시 전체의 열 흡수율이 낮아져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어떻게 동네에 적용할까?

01

적용대상

평평한지붕같은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건물지붕, 건물외부 심지어 아스팔트나 놀이터 바닥등에 적용.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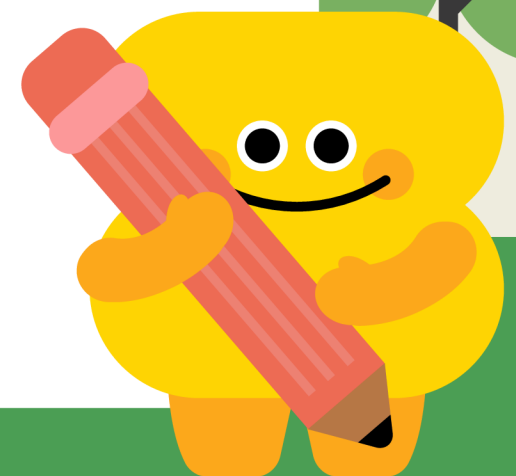
페인트로 칠하기

적용할대상을 정하고 파란색, 흰색을 이용해서 페인트를 칠한다. 이로인해 단순히 나무심는 것 이상의 과학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음.

03

테마 설정

아이디어 1과 비슷하게 계절이나 특정한 기념일 마다 테마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칠해진 배경위에 간단한 벽화그림을 그리는방법.





정부, 나라가 실천가능한 아이디어

01

그늘길 조성하기

도시의 모든 도로에 '그늘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가로수를 촘촘히 심거나, 대형그늘막을 설치하고 스마트 그늘막을 통해 일
정온도 이상되면 펼쳐지거나 바람이 나오는 등의 여러 기능을 해준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 도시민들이 쾌적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
장 등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 도시의 열기를 줄일
수 있다.



02

증발을 이용한 공공휴식 공간

공원이나 광장에 얇은 수로나 인공개울을 만들고, 물이 흐르면
서 증발열을 빼앗아 주변공기를 시원하게 만든다. 이로인해 사
람들이 시원하게 발을 담글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온도반응형 공공시설물 도입

03

도시의 벤치, 버스정류장 의자 등에 온도 반응형 소재를 도입한
다. 뜨거워지면 색이 변해 열을 덜 흡수하는 변색소재를 사용하거
나, 시원한 공기가 나오는 냉각벤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캠페인, 챌린지를 이용한 아이디어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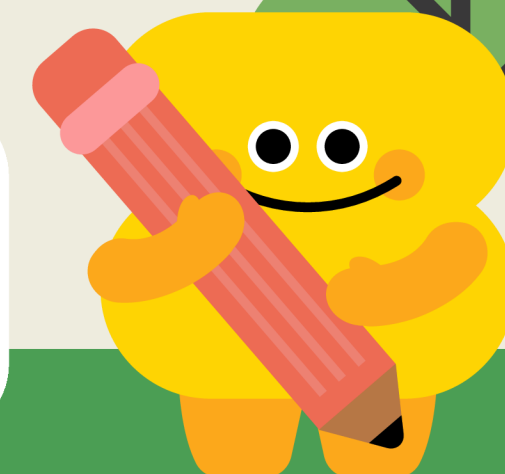
열대야같은 밤에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밤샘 환기 챌린지**

02

정부가 지정한 '쿨링스팟'을 찾아 스탬프를 모으는 **쿨링존 스탬프 투어**

03

각 집 앞, 상점 앞, 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작은 나무를 심어보는 **나무캠페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실천으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가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합니다.

